

●대림 제 2일

인간의 탐욕
세계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져들고 연일 계속
되는 불황의 늪에서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고통
의 신을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문과
모든 뉴스의 첫머리는 경제 불황 소식이 자리를
차지하여 겨울 싸늘함과 함께 을씨년스러움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운운
하며 들뜬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분명 커다란
사치이자, 현실을 너무도 모르는 처사일 수 있습
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는 또다시
희망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 흑인 인권운동의 지도자였던 ‘마틴 루터
킹’(1929~1968) 목사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국가는 병들었습니다. 나라에 불안이 생
기고, 혼란이 여기저기에… 하지만, 주위가 어두
워야만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공회대학교의 석좌교수이신 ‘신영복’ 선생은 또
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난다’는 사실보다
더 따뜻한 위로는 없습니다. 이것은 밤하늘의 이
야기이면서 동시에 어둔 밤을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옷이 얇으면 겨울
을 정직하게 만나게 되듯이 그러한 정직함이 일
으켜 세우는 우리들의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이
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세계 경제의 위기를 맞으며 우리
는 또다시 원론적인 이야기와 그 교훈을 잊어서
는 안 됩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의 원조 아담과 하와는 분명 하
느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렸습니다.

“이제 내가 온 땅 위에서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그런데도 금지된 마지막 과일나무까지 먹어치우
려 합니다. 모든 것을 채워도 마지막까지 먹어치
우려 하였던 탐욕의 게걸스러움이 원죄이며, 그
원죄를 우리는 오늘의 세계까지 끌고 왔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슬픈 비극은 그로부터 비롯된 것
일지 모릅니다.

모든 지하자원을 마지막까지 파내려는 욕망, 마
지막 물고기까지 싹쓸이로 잡아버리는 탐욕, 마
지막 남은 나무까지 베어버리는 잔인한 이기심
이 오늘의 재앙을 키운 것인지 모릅니다. 이 같
은 일을 예견하였는지 이미 수세기 전, 포획과
남획을 일삼는 백인들의 야수 같은 문명에 대해
크리족 인디언 추장은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마지막 나무가 베어져 나가고, 마지막 강이 더
럽혀지고, 마지막 물고기가 잡힌 뒤에야 그대들
은 깨달으리라. 돈을 먹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 같은 탐욕과 욕망의 세상에서는 영광의 주님
을 맞이할 수 없기에 오늘 이사야 예언자는 이
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느
님을 위하여 사막에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거
친 곳은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은 평야가 되어라.
이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니,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그것을 보리라.”(이사 40, 3~5)

이사야 예언자의 이 말씀을 인용하여 마르코 복
음사가는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길을
닦았던 세례자 요한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인류
의 긴 역사를 거치며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끊임

없이 구세주 오실 길을 닦았던 슬기롭고 정의
로웠던 선각자, 예언자, 착한 목동들, 그들이 광
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었던 ‘킹’ 목사는 1963년 8월 23
일 노예해방 100주년을 기념하여 워싱턴에서 열
린 평화 대행진에서 그 유명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을 합니다.

“이제 절망의 계곡에서 헤매지 맙시다. 저는 오
늘 저의 벗인 여러분께 이 순간의 고난과 좌절
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여전히 꿈이 있다는 사
실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
다.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이 낮아지고, 울퉁불퉁한 땅이 평지로 변하고,
꼬부라진 길이 곧은 길로 바뀌고, 하느님의 영광
이 나타나 모든 생물이 그 광경을 함께 지켜보
리라는 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
다.”

예언자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들으라’고 명령합니
다. 그리고 들은 것을 ‘행하라’고 합니다. 이제 우
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두운 현실에 분명히 들
었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만 있어서는 안 됩
니다.

사막이 되어버린 세상에 희망의 나무와 숲을 가
꾸어야 합니다. 모든 미움과 탐욕의 골짜기를 용
서와 나눔으로 메꾸어야 합니다. 거칠어진 마음,
분쟁의 상처를 평화의 평지가 되도록 닦아야 합
니다. 그럴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 그분께서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조금이라도 변
화시키려는 애씀이 있을 때, 우리는 오시는 주님
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배광하 신부 <갯세마니 피정의 집 원장>

●사제들을 위한 기도

-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제들을 지켜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성체와 성혈을 이루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주소서.
-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 사제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강복하시어
은총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 아멘.

● 대림에 바치는 기도

우리를 구원하신 천상은총이
우리게 기쁜구원 내려줄것을
위대한 예언자들 미리알고서
에수임 오실것을 선포하였네
다가올 기쁜영광 미리알리는
진실한 예고소리 울려퍼지는
이아침 유난히도 빛을발하고
기쁨이 마음에서 솟구치누나
사람들 범죄한후 처음오심은
세상을 처벌하기 위함아니고
쓰리고 아픈상처 싸메주시며
없었던 모든사람 구하심이네
세말에 다시오심 예고하나니
심판날 성인에게 상급주시고
행복한 하늘나라 문을 여시려
에수님 문앞에서 기다리시네
영원한 하늘의빛이 미퍼지고
구원의아침새별 반짝이나니
찬란한 천상빛이 우리를불러
천국의 시민되라 초대하시네
에수님 당신만을 찾고있으니
당신의천주성을 보여주소서
그모세 영원토록 바라봐오며
세세에 찬미노래 부르오리다. 아멘.

본당소식

◎ 신부님 부임

인천교구 소속이신 김선호 루카 신부님이 주임 신부님으로 부임 하셨습니다. 많은 기도로 환영해 주십시오

▶약력:

25,Jan,1995 (Paster) Ordination

Jan,1995~Jan,1996 Diocese of Incheon

Ganseok 2-Dong, Associate Paster

Jan,1996~Jan,1997 Diocese of Incheon

Juan 1-Dong, Associate Paster

Jan,1997~Jan,1998 Diocese of Incheon

Wonmi-Dong, Associate Paster

Jan,1998~Sep,2000 Diocese of Incheon

Bupyung 3-Dong, Paster

Sep,2000~Jan,2002 Study and Liturgical Music

Institute, Director

Jan,2002~Dec,2004 Diocese of Incheon

Onsu-Ri, Paster

1,Mar,2003~21,Dec,2007 Incheon Catholic

University, Church Music Lecturer

Dec,2004~Dec,2007 Catholic Culture Centre,

Director at the same time

Liturgical Music Institute, Director

Dec,2007~Dec, 2008 Sabbatical Year

◎ 본당 추진위원회 임명 안내

본당 설립의 효율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한시적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행정적인 업무 수행과 본당의 초석을 마련할 것입니다. 교우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추진위원장 : 김직현 요한

▶추진위원 : 장명길 바오로, 이상희 세라피아, 이명희 스테파노, 김현태 요셉, 한택중 막시모

오늘 미사후 추진위원들은 교육관으로 모여주세요

◎ 교육관내에 소성당을 마련하였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매일 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크신 주님의 은총과 더불어 공동체 안에서 늘 말없이 보이지않게 일해 오신 교우분들의 피와 땀의 결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12월 구역모임 안내

12월은 각 구역별로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성탄 판공 성사 안내

10일 버팔로 12일 런던 16일 예수 성심

17일 한맘 18일 해밀톤

본당은 21일 미사 중, 후에 있습니다.(친교는 정상적으로 진행 합니다.

◎ 성탄 미사 안내

이번 성탄미사는 해밀톤에서 있습니다. 서부공소로서의 마지막 행사입니다. 모든 교우들이 참석하시어 뜻깊은 날을 기리기 바랍니다

◎ 바느기도회

12월 17일(수) 오후 7시30분-박순웅 형제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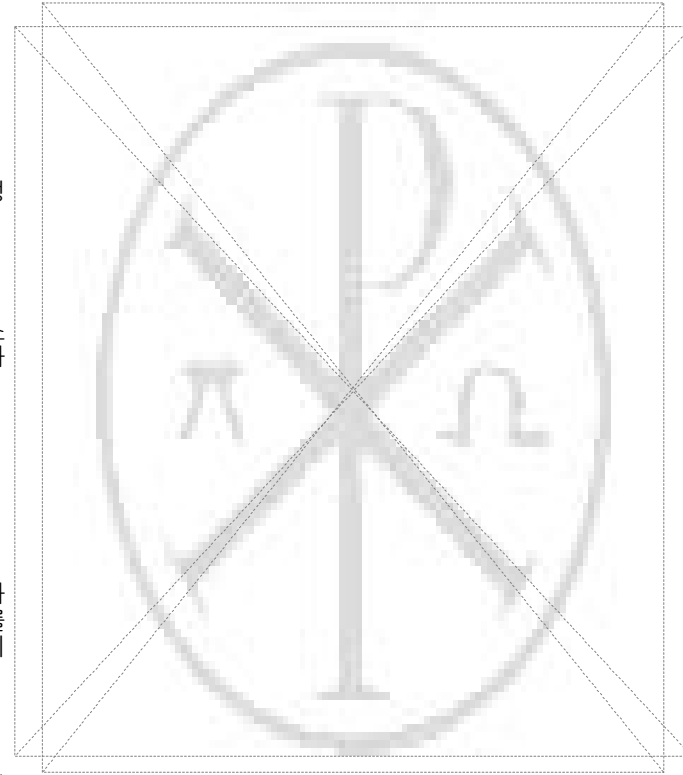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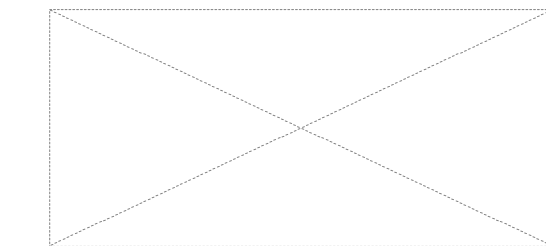
◎ 축하드립니다.

장명길 바오로 형제의 차남 장원희 요셉 형제가 12월 12일에 오후 4시에 본당에서 혼인 성사를 올립니다. 새로이 꾸미는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이 충만하여 성가정을 이루기 바랍니다.

◎ 12월 영명축일 교우 명단 - 축하드립니다.

2일비비안나 장지연, 5일 크리스티나 박경미, 6일 아브라함 김호철, 8일 마리아 김건아, 13일 루시아 장용경, 16일 라자로 노동원, 24일 바오로 박재영, 26일 스테파노 김정민, 27일 요한 이창렬, 요한 장철원 요한 이우원,태오도로 이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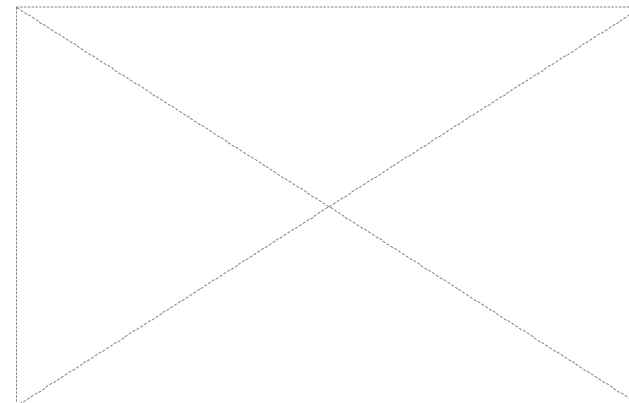
◎헌금봉헌은 주님께 자신의 정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적당히 골라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준대로 온전히 다 바쳐야 마땅한 것입니다. 정성껏 마음을 모아 봉헌합시다.



2008-48

2008. 12. 7.

대림 제 2주일



미사전례

해설 김근효 차주 해설 신계연

화답송

시편 85(84), 97-100과 10, 11-12, 13-14 (◎ 8)



(후렴)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자애를 보이시 고 주님의 구원을 베푸소서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부한 생명력으로 너희 안에

살아있기를 바라노라. ◎알렐루야

성가

입당 (92) 구세주 내 주 천주여

봉헌 (517) 내가 절망속에

성체 (172) 그리스도의 영혼

되장 (21) 지극히 전능하신 주여

독서

12월 7일 신상우 신계연

12월 14일 오세종 오미경

12월 21일 이동기 이정숙

봉헌

12월 7일 김현태 김진선

12월 14일 신상우 신계연

12월 21일 오세종 오미경

복사

12월 7일 구한림 이수민

12월 14일 류지현 노승범

12월 21일 구하람 김건우

친교

12월 7일 영광팀 12월 14일 장미팀

12월 21일 백합팀 12월 28일 신비팀